

호매칼럼



김명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더위에는 부채를 사용해요

창포꽃이 고개를 뿔군 여름날이다. 공원 호숫가에 고개를 뿔군 창포 꽃을 보면서 부채를 생각했다. 자귀나무의 잎도 무더위에 고개를 뿔군었다. 더위에 축 늘어진 나뭇잎 모습에 귀신 머리카락 닮았다 하여 자귀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일설이 맞는가보다.

6월 하순의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구에 사는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 아파트 현관에서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의 손에 하얀 부채가 들려 있었다. 4세 여자아이는 신나는 모습으로 부채에 대해 엄마에게 설명한다. 부채를 부치면서 부채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부채 한 번 빌려줄 수 있나요?" 묻자 고개를 돌린다.

어린이는 자신의 물건에 대한 애착이 성인보다 강하다. 일부러 한번 더 빌려 달라 하자, 유아는 "안돼요. 내 부채는 소중한요. 전등 한 등 끄기, 에어컨 켜지 않고 부채로 무

더운 여름을 이겨낼 거예요." 하면서 우리에게도 부채 바람을 부쳐준다.

아파트 현관에서 만난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경은 시민이 지켜간다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아나바다 운동' 실천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교육의 힘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마을 활동가인 P는 숲 속에서 환경을 지켜야 한다며 어린이집, 유치원에 환경 지킴이 교육을 위해 그림책을 들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P는 마을 활동가를 하면서 분리수거, 전기 아껴쓰기, 나무 심기 활동은 유아기부터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교육을 그림책으로 접근했다. 환경은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숲 속에서 실천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

P는 첫째 아이들과 함께 분리수거 활동을 체험해 보게 하는 놀이하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존버냥의

'야 기차에서 내려'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이 그림책은 브라질의 환경운동가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만든 그림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가는 환경에 대한 그림책이다. 그림책을 함께 읽고 환경에 대해 인식하며 아이들과 함께 재활용을 늘이로 경험해 보게 한다.

두 번째는 백희나 작가의 '달사베트' 그림책을 통해 무더운 여름과 다한 전기 사용으로 녹아버린 달과 정전이 되어버린 아파트를 배경으로 전개하는 환상 그림책으로 유아들과 함께 전기 한 등 끄기 게임을 하고 확장 활동은 부채 만들기 활동을 해 보는 것이다.

부채를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에어컨을 줄이고 부채를 사용하기 활동을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며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다.

아마 아파트 현관에서 만났던 꼬

마 친구는 마을 활동가와 함께 부채 만들기 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세 번째는 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일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내 마음 가까이' 그림책은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안겨 준다.

할아버지가 씨를 심고 시간이 흘러 씨앗은 자라 나무가 된다. 나무는 숲의 거인이 되어 우리의 놀이터이자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위해 저탄소 운동을 위해 나무가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보고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봉지 종이나무를 만들고 색종이에 왜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게 하여 유아들에게 재미있게 접근하

는 방법이다.

3권의 그림책으로 우리 아이들과 직접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마을 활동가 P의 환경운동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인 삶인 것이다.

우리가 사는 마을 공동체는 서로가 돕고 협력하여 살아가기 위해 환경운동은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그림책으로 알아보고 어린이가 직접 놀이로 경험하는 환경운동이 지역민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아이의 부채 바람이 더 큰 바람을 일게 할 것이다.

환경은 일상적 삶 속에서 지켜야 한다. 동구에 사는 마을 활동가 P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왔다.

부채를 사용해요. 단순한 어린이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명의 어린이가 부채를 부치는 손이 나비 효과가 되어 환경운동이 꽃이 피게 될 것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캠핑장 관리자 화재 예방 안전 수칙

전기차 충전 시 안전 수칙 준수



윤영애 /여수소방서 여성119안전센터

리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되도록 전기차 충전 시 급속 충전보다 완속 충전을 하는 게 화재 발생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둘째 차량 충전시 물기를 조심해야 한다. 물기가 있는 손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면 감전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충전구나 커넥터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비가 오는 날에도 빗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셋째 화재가 발생했다면 긴급 전원 차단 스위치를 작동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자리를 피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기차 충전 시 안전 수칙을 개인적으로 숙지해 전기차 안전사고를 예방하자.

전기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최근 전기차 관련 안전 수칙의 중요성이 더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기차 충전 안전 수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전기차는 80% 이상 충전을 피해야 한다.

전기차가 일정 용량 이상 충전된 상태에서 과한 전류를 공급하면 배터리에 손상을 주며, 그로 인해 배터



김재하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화재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43건)이 가장 많았고, 숯불 등 불씨 관리 소홀(26건), 담배꽂초(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캠핑장 관리자를 위한 몇 가지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첫째 먼저 각 시설별 소화기를 배치하고 화재(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소화기의 경우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함을 설치해 소화기함을 내부에 보관해야 한다. 소화기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보존성과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된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대피시간 확보를 위한 방염 천막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19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토록 규정했기에 필수적으로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천막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시설별 전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캠핑객들이 사용하는 캠핑 장비의 경우 다량의 전력을

답답한 팬데믹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울리며 여유롭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캠핑은 어느새 사람들에게 대중화된 여가 활동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휴가 동안 가장 즐겨 하는 여가활동으로 캠핑이 당당히 3위(19.2%)를 차지하고 있다.

캠핑 문화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역시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에서 145건의 화재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용하기에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뿐만 아니라 과전류나 단락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넷째 화재 예방은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를 해야 한다. 캠핑장은 야외에 위치하기 때문에 각종 눈과 비, 바람과 햇빛에 의해 부식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기에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언제든지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캠핑장 관리자는 위와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캠핑객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계시물, 책자,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하여 캠핑장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믿음과 신뢰를 주도하며, 화재 발생 시 대피 지침과 안전 교육을 함으로써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캠핑은 자연 속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를 위해 항상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안내한 사항을 숙지하여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통하여 캠핑객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

Large 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 featuring a bamboo forest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